

다산포럼



박 진
상지대 명예교수

오늘은 다산의 기재(奇才)를 알려 주는 야담이나 일화로 그의 다른 얼굴을 소개하려고 한다. 다산의 천재성은 여러 야담·일화에 숨어 문자로 혹은 구전(口傳)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문자 놀이'는 그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일화에 속한다.

전통 시대 독서인들이 서당에서 글 읽다가 흔히 벌이는 '글자 놀이'는 경전(經典)의 글귀를 따라 글자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상대가 설사(說辭)하면 바로 물동(勿動)으로 응대하는 것 등이 그렇다. 사실 설사는 '말을 잘한다', 물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논어(論語)의 글귀인데, 본 의미는 버리고 소리만을 따온 것이다. 이는 조선 사대부 문화의 한 양태이다.

이와 달리 다산의 글자 놀이는 매우 폭넓고 다양하다. 그의 민첩한 글귀 응대 현장을 보자. 15세로 장가 갈 때의 일화이다. 처 중형인 흥인호(洪仁浩)가 '사촌 매부(四寸妹夫) 삼척동자(三尺童子)'라고 놀리자, 다산은 '중후장손(重厚長孫) 경박소년(輕薄少年)'이라고 바로 맞받아 상대의 기를 단번에 꺾어 놓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다산과 정조의 글자 놀이도 한번 보자. 상대가 글자를 던질 때 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지는 게임인데, 즉석에서 발음이 같은 단어

일화(逸話)로 보는 다산(茶山)의 다른 얼굴

를 대는 문답이다. 정조가 먼저 '말니(말의 이빨) 마치(馬齒) 하나 둘 일이(이리, 一一)' 하니 다산은 '닭의 깃이 계우(鷄羽) 열다섯 이오(二五)'라고 답한다. '일이'와 한자 '일이' (一一)의 발음이 같고 '이오'와 한자 '이오' (二五)의 발음이 같은 것을 이용한 것이다. 이어 정조가 '보리 뿌리 맥근 맥근(麥根)이라 하니 다산은 '오동 열매 동실 동실(桐實)'이라 받아친다. 다시 정조가 '아침까지 조작 조작(朝朝)' 하니 다산은 '낮 숨어지 오독 오독(牛犢)'이라고 화답한다.

흘 글자로 겨루는 내기도 있었다. 다산과 정조가 겨룬 흘 글자 게임은 같은 글자 세 개가 모여 이루어진 한자를 서로 번갈아 가며 대는 놀이였다. 즉 한 사람이 "계집 '여'(女)가 셋 모이면 간사할 '간'(姦)" 하면 상대방이 "입 '구'(口)가 셋 모이면 못 '품'(品)" 하는 식이다. 계속해서 맑을 '정'(晶), 나무 뽕뽕이 들어설 '삼'(森), 돌 쌓일 '퇴'(磊) 등의 글자가 이어진다.

그러다가 다산이 "전하께서 한 글자만은 신(臣)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정조가 "모든 자전(字典)에 있는 글자를 죄다 외웠는데, 한 글자는 모를 거라니 무슨 말이나?"라고 묻는다. 다산이 "그러서도 이 글자만은 모르실 겁니다" 한 뒤 서로 적은 글자를 퍼보는데, 그때서야 정조가 '일' (一)이 셋 모인 '삼' (三)자를 놓친 걸 알고, 군신이 서로 한바탕 크게 웃었다고 한다. 두터운 믿음과 서로를 품어 주는 모습이 아름답다. 문자 그대로 임금과 신하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이 즉, 군신지기(君臣知己)의 실감 나는 장면이다.

다산이 유배에서 벗어날 때도 감춰진 일화가 있다. 순조 18년(1818) 첫 가을에 당시 세도가였던 김조순

(金祖淳)의 집안 인물인 김이교(金履喬)가 강진 귀양지에서 풀려 귀경길에 오르면서 다산초당에 들렀다. 당색은 다르지만 같은 나이인 데다, 한림(翰林) 동료로 사림이 남달랐는데,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어느덧 백발노인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한바탕 눈물을 쏟은 뒤 못다한 이야기로 밤을 지새웠다. 김이교는 내심 다산이 어떤 부탁을 하리라 여겼는데 다산은 내내 정담만 꺼낼 뿐이었다. 마침내 십 리 밖까지 전술 나온 다산에게, "여보 영감, 내게 할 말 없소?" 물으니, 다산은 "없소이다"라고 짧게 말한 뒤 췌바레(擗擗)에 아래의 작별시를 써 주는 것이었다.

"가을비 내리는 역사(驛舍), 이별이 더디구나(驛亭秋雨送人遲) / 만 리 밖 외딴 이곳 누가 다시 찾아오리(絕域相尋更有誰) / 반자의 신선이야 어찌 바랄 수 있을까만(班子登仙何可望) / 이릉의 귀향도 마침내 기약하기 어려워졌거려(李陵歸漢竟無期) / 대유사(大酉舍)에서 쓸 것인 일 눈앞에 삼삼한데(尙思西舍揮毫日) / 경신년(1800) 임금님 별세, 그 아픔 차마 입에 담을까(忍說庚年鑿劍時) / 뼈마린 대나무 그루터기에 새벽 달빛 비추면(昔竹數枝殘月曉) / 고향으로 고개 돌려 주룩주룩 눈물만 흘리리.(故園回首淚垂垂)"

이교가 그 부채를 들고 서울에 돌아와 재상인 김조순의 사람에게 들렀다. 조순은 이 시(詩)를 급세 알아보고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이건 미용(美翁: 다산의 자)의 시가 아닌가?" 했다. 그리고 바로 국왕에게 아뢰어 다산이 해배(解漚)되었다고 전해진다. 위에서 소개한 일화들은 다산의 천재적 재능과 정조와의 자별한 교분, 그리고 학문과 의리를 지키려는 그의 견고한 마음을 세 상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청춘 특독



조 서 희
광주대 문예창작과 2학년

'기생충'에 이어 영화 '미나리'가 미국 영화계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제36회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으로 2관왕을 차지했으며, 출연 배우인 윤여정은 제46회 LA 비평가협회상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이번만이 아니다. 제26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신인배우상과 외국어 영화상을, 제78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다. 권위 있는 국제영화제에서 굵직한 상들을 받은 것은 한국 영화의 쾌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 '미나리'가 받은 상의 이름이다. 선댄스 영화제에서는 '미국 드라마 장르'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지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과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는 미국 영화가 아닌 외국 영화로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이 영화는 '미국 드라마 장르'로 취급되기도 하고 '외국어 영화'로 분류되기도 한다. 정작 영화는 한

영화 '미나리', 한국 영화일까 미국 영화일까

국어와 영어가 번갈아 나오는데 말이다. 이 글의 첫 문단에서 쓴 '한국 영화'라는 표현을 정정해야 할 것 같다. 과연 이 영화는 한국 영화일까, 아니면 미국 영화일까.

'미나리'를 촬영한 정이삭 감독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여권상 이름은 리 아이작 정(Lee Isaac Chung)이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의 사람인 것이다. 출연 배우 또한 미국 국적(또는 이중 국적)과 한국 국적으로 나뉜다. 한국 배우로는 드라마 '녹두전'으로 크게 이름을 알렸고 이 영화에서 모니카 역을 맡은 한예리가 있고, 한국인이려면 누구라도 얼굴을 알 만한 순자 역을 맡은 중년 배우 윤여정이 있다. 또 다른 영화 출연자 중 남자 주연 배우는 드라마 '워킹데드'와 한국영화 '버닝'에 출연했던 '제이콥' 역의 스티븐 연, 주연 배우의 아들과 딸로 열연한 '데이브' 역의 앨런 김과 '앤' 역을 맡은 케이트 조는 모두 한국계 '미국' 배우다.

영화에서 쓰는 대사는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다. 배우 또한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으로 나뉜다. 언어와 배우의 국적 모두 어느 한쪽의 영화라고 하기가 모호하다. 그렇다면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는 어느 나라의 회사일까. 영화 '미나리'는 유명 배우 브래드 피트가 대표로 있는 플랜 비(Plan B)에서 제작을 맡았다. 약 200만 달러의 저예산 영화 제작비이지만 명백히 미국 자본

이다. 제작사가 미국 회사이니 미국 영화라고 봐야 한다는 논리라면 중국 회사의 PPL을 받아 중국 자본이 들어간 한국 드라마까지 중국 드라마라고 봐야 할까?

이 영화가 어느 시상식에서는 미국 영화로 취급받고, 어느 시상식에선 외국어 영화로 취급받자 이에 대한 많은 의견이 오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당연하다. 이 영화는 어떠한 기준으로 봐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영화를 제대로 봤다면 '미나리'가 한국 영화인지 미국 영화인지는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 영화는 이민 가정의 혼란스러운 정체성 고민 속에서 따뜻한 인류애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종'과 '국적'이 아닌 '휴머니즘' 그 자체가 중요한 키워드이다.

앞서 말했듯이 영화 '미나리'가 한국 영화인지 미국 영화인지는 전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영화를 인종이나 국가에 가뉘 보지 않고 넓은 시야로 보는 일이다. 국경이 없는 동영상이 유통되는 21세기에 아직도 언어와 배우로 영화에 국적을 가려 장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영화 '미나리'는 잔잔하지만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휴머니즘'이고, 우리 또한 앞으로 나올 다양한 문화들에 대해 국적을 따지지 않고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기 고

청년 창업농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양 재 영
농협 영광군지부 지부장

만 영농 경력 3년 이하)과 후계농(50세 미만 영농 경력 10년 이하)에 대해 세대당 3억 원 이하의 창농 자금 융자(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를 지원합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청년 귀농장기 교육사업'은 농장에서 6개월간 장기 체류하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습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는 농지 구입을 위해 '2030세대 농지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만 20~39세)에게 농지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둘째, 농업 경영을 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공동 창업(공유 농장)도 대안입니다. 어떤 사업이건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준비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 청년이그린협동조합(이안면 아천 1리)은 2017년부터 폐교 공간을 활용해 귀농 청년들과 마을 주민이 10만 원씩 출자해 협동조합을 설립, 청년들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업 경영과 기술을 습득하면서 농촌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충남 흥성군 협업농장(장곡면 도산리)은 2011년 세 명의 청년들이 비닐하우스 여덟 동에서 10여 종의 쌈 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해 지금은 1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사회적 농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협이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농협 조합원이 되면 다양한 농업인과 교류하며 경험 공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관내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일정 기준(330평 이상 농지 경영 등)에 부합하고 해당 농협이 정하는 최소 출자금을 납입하면 됩니

다. 조합원이 되면 출자 배당(1년 정기예금 금리에 농협별 결산결과에 따른 2% 이내의 추가 금리 가산)을 받고 이용 실적에 따른 이용과 배당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종 영농 자금 이용 시 우대 금리를 적용 받고 농자재 구입 시 할인, 농협을 통한 산산물 출하 및 판로 확대, 농업 관련 교육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비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이 운영하는 '청년농부 사관학교' (6개월)는 개인당 1000만 원이 소요되지만 입교생은 100만 원만 부담하고 농업 경영 지혜, 농업용 기계(드론, 굴삭기, 지게차 포함) 자격증 취득 지원, 해외 선진지 견학 기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농협 대출 이용시 담보가 부족한 경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증기금에 비해 지원 대상자 수혜 폭은 넓고 분담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특히 청년 창업자, 전문 교육 이수자 등에게는 일반 보증과는 다른 별도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해 지원하는 우대 보증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농업은 자연이 친구이기도 하지만 훼방꾼이 되는 시기도 견뎌 내야 하는 산업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도전은 농업계는 환영합니다. 출발선이 서로 다른 청년들이수록 간절함으로 무장해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묻고 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간절함은 대부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만 문제는 연착입니다. 기다리다 지쳐 포기할 수 있는 연착 변수를 감안해 차선책도 꼭 준비해야 합니다.

社 說

공법단체 놓고 5월단체 갈등 실망스럽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5월 3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일부 단체는 공법단체 설립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과 대립을 계속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기존 5·18 관련 사단법인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부상자회 및 5·18구속부상자회의 회원들도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 자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내용 담겼다. 아울러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한 명이 유족회 등 공법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기존 사망자·행방불명자·상이자로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로까지 확대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 5·18 진상규명 특별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5·18 3법'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면서 5·18 현안 관련 입법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처럼 5월 3단체가 국회가 인정하는 공법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유족회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단체는 내용을 거둬두고 있다. 공법단체로 등록 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내부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엇그제 5·18 제41주년 기념식장에서는 몸싸움까지 벌어져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5월 단체 관계자들은 이제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 나눔과 연대의 5·18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공법단체 설립을 둘러싸고 앞으로도 협력은커녕 대립만 계속한다면 광주 시민들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것이다.

수익에만 급급하는 골프장 '해도 너무 한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만 유독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골프들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는 국내 골프장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틈을 타 골프장들이 그린피(입장료) 등 이용 요금을 앞다퉈 올리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0년 5월~2021년 5월) 호남권 골프장 입장료는 주중 19.3%, 주말에는 15.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 A골프장의 경우 1년 전만 하더라도 주말 1인당 요금이 18만~23만 원 정도였으나 현재 29만 5000원으로 30%가량 올랐다고 한다. 카트비 등을 제외한 순수 그린피만 해도 평일 22만 원, 주말 25만 원 수준이다.

그린피뿐만 아니라 카트 비용도 올랐으며, 도우미(캐디) 이용 요금을 슬그머니 1만 원가량 올린 곳도 많다. 무안의 B골

프장은 카트 비용을 지난해 4만 원에서 연말에 8만 원으로 올렸다. 이렇다 보니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이 이용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광주·전남 지역 골프장 39곳 중 82%인 32곳이 회원제보다 높은 이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들 골프장들은 정부의 골프 대중화 조치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가격 통제가 이뤄지지 않자 보니 수익에만 급급해 이용 요금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골퍼들만 봄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골프장들의 폭리를 고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골프장 폭리를 계속해서 방지할 경우 골프는 다시 상류층만의 스포츠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당국은 폭리 횡포를 부리고 있는 골프장 운영을 적절히 통제해 '대중제 체육시설'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살려 내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의 점검과 단속이 시급하다.

無 等 鼓 🥁

백신 접점이 본격화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진앙지가 기존의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아시아와 남미 및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로 빠르게 옮겨 가고 있다. 저개발 국가들은 의료 및 방역 체계가 미비한 데다 백신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저개발국이 밀집해 있는 아프리카의 경우, 백신 접종 인구가 전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도 등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창궐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과 글로벌 제약사들이 저개발 국가에 대한 백신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열린 '글로벌 보건 화상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중·저소득 국가에 최소 1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아울러 아프리카의 백신 생산 공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약 1조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등도 국제 원조 등을 통해 저개발 국가에 백신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선임기자·서울취재본부장

화이자, 모더나, 존슨 앤 존슨 등 백신을 생산하는 글로벌 제약사들도 내년까지만큼 저개발국에 최대 35억 회분의 백신 물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 제약사는 해당 물량을 원가 또는 그 이하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2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60%에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목표 아래 56조300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코로나19 중식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해 것으로 풀이된다.

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종·민족·종교 등을 넘어 재앙적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하는 인류의 '휴머니즘'이 발현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역사학적으로 보면 타인에 대한 연민과 배려는 인류와 문명이 지속될 수 있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위기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는 인류의 휴머니즘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집 부 220-0649 편집 부 220-0632 편집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